



보 도 자 료

보도

2019.5.20.(월) 조간부터

배포

2019.5.17.(금)

책 임 자	금융위 금융정책과장 신 진 창(02-2100-2830)	담 당 자	황 기 정 사무관 (02-2100-2832) 이 용 준 사무관 (02-2100-2835)
	금융위 자본시장과장 안 창 국(02-2100-2656)		허 성 사무관 (02-2100-2655)
	금융위 보험과장 하 주 식(02-2100-2965)		이 정 찬 사무관 (02-2100-2972)
	금융위 중소기업과장 홍 성 기(02-2100-2995)		김 태 훈 사무관 (02-2100-2991)
	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 준 수(02-3145-8020)		김 부 곤 팀 장 (02-3145-8040)
	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 김 영 주(02-3145-6770)		이 종 오 팀 장 (02-3145-6773)
	금감원 여신금융감독국장 이 상 민(02-3145-7550)		이 호 진 팀 장 (02-3145-7447)
	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 이 희 준(02-3145-8070)		정 대 현 팀 장 (02-3145-8072)
	금감원 자본시장감독국장 김 동 회(02-3145-7580)		이 상 현 팀 장 (02-3145-7617)
	금감원 보험감독국장 이 창 욱(02-3145-7460)		서 영 일 팀 장 (02-3145-7455)
	금감원 건전성감독조정팀 부국장 김 동 현(02-3145-5146)		김 성 하 선 임 (02-3145-5148)
	생명보험협회 시장지원본부장 신 영 선(02-2262-6569)		김 인 호 부 장 (02-2262-6645)
	손해보험협회 기획관리본부장 서 영 종(02-3702-8580)		김 지 훈 부 장 (02-3702-8572)
	여신금융협회 사업본부장 이 태 운(02-2011-0710)		김 효 석 부 장 (02-2011-0743)

제 목 : 「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」 개최

1

회의 개요

- ☐ '19.5.17. 금융위원회는 손병두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「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」를 개최
- ☐ 금일 협의회에서는 '부동산 PF 익스포져 건전성 관리 방안'과 '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방안' 등을 논의

【 제2차 거시건전성 분석협의회 개요 】

- 일시/장소 : '19.5.17(금) 08:30~09:30, 정부서울청사 16층 대회의실
- 주요 참석자
 - (금융위) 사무처장(주재), 금융정책국장, 자문관, 금융정책과장, 자본시장과장, 보험과장, 중소기업과장 등
 - (기재부) 자금시장과장 (한은) 금융안정국장
 - (금감원) 거시건전성감독국장, 건전성감독조정팀 부국장, 유관부서
 - (예보) 리스크총괄부장
 - 금융연구원·보험연구원·자본시장연구원 전문가, 예탁결제원, 한국증권금융

2

모두발언 주요내용

-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을 통해,
 - 금융중개(financial intermediation)는 본질적으로 수익에 상응하는 리스크를 수반하는 만큼,
 - 시장참가자들의 낙관적 편향 속에 위험을 과소평가하거나, 규제 차이 등으로 특정 부문에 리스크가 과잉 축적될 경우, 리스크가 언제든지 증폭·현실화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
- 금융중개에 수반되는 리스크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, 어떤 방식으로, 어느 수준까지 축적되고 있는지 면밀히 파악하고,
 - 리스크의 배분에 왜곡이나 쏠림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통해 시정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
- 이러한 맥락에서 금일 논의 주제인 '부동산 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방안'과 '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방안'을 소개

【 부동산PF 익스포저 건전성 관리 방안 】

- 손 사무처장은 은행권은 부동산 PF 익스포저를 줄여온 반면, 비은행권은 적극적으로 익스포저 규모를 늘려 왔음에 주목
 - * 부동산PF 대출 ('13년말→'18년말, 조원)
: (쏴금융권) 39.3 → 64.0 (은행) 21.5 → 17.1 (비은행) 17.8 → 46.9
 - 이에 따라, PF 대출 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 금융권 완충력·복원력이 낮아지는 것은 아닌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

- PF 대출 관련 건전성 지표가 현재는 양호한 수준*이나, 여건 변화로 여러 사업장들이 동시에 영향을 받아 대출 건전성이 일시에 변동할 가능성이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고 언급

* 소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(%) : ('14말)9.4 ('16말)4.1 ('18말)2.3

- 아울러, PF 채무보증의 경우 부실인식을 손쉽게 이연시켜 채무보증 리스크를 누적시키고 있을 가능성 등도 살펴봐야 함을 강조

□ 부동산PF 익스포저의 잠재리스크 관리를 위해 ①건전성 규제 정비, ②리스크 실태점검, ③종합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

- ① PF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가중치와 대손충당금 적립률 등이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고,
 - 업권간에 규제공백이나 규제차익이 있어 익스포저가 전이(spillover)되는 부분이 있는지도 파악하고 대응
- ② 부동산PF 익스포저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요주의 금융회사를 선별하여 리스크 관리실태를 점검
- ③ 「부동산 익스포저 종합관리시스템」을 구축하여 가계-기업-금융투자 부문의 부동산금융과 관련된 데이터 수집 범위를 확대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

[채권대차시장 리스크 관리 방안]

□ 채권대차시장의 경우, 올해 1분기 규모가 59.8조원으로 '09년말(8.3조원)에 비해 약 7배 증가하는 등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,

- 거래상대방 신용리스크나 시장변동성 확대에 따른 담보가치 하락 리스크 등을 거래·중개 과정에서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

□ 채권대차거래 활성화를 위한 우호적 여건은 유지하면서 대차중개기관의 위험관리능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,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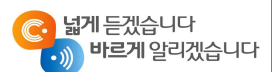
- 채권차입기관의 신용도에 따른 차입한도 설정, 적격담보 범위 축소, 최저담보비율 상향조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임

※ 별첨 : 사무처장 모두발언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
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※ 부동산PF 익스포저는 PF 대출(사업시행사 등에 대한 대출)과 PF 채무보증(PF 대출·유동화 등에 대한 신용보강)으로 구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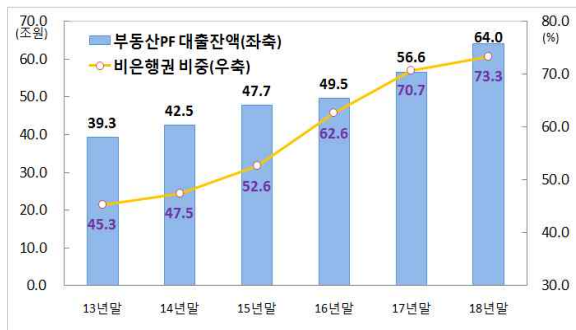
1 부동산PF 익스포저 현황

1. 부동산PF 대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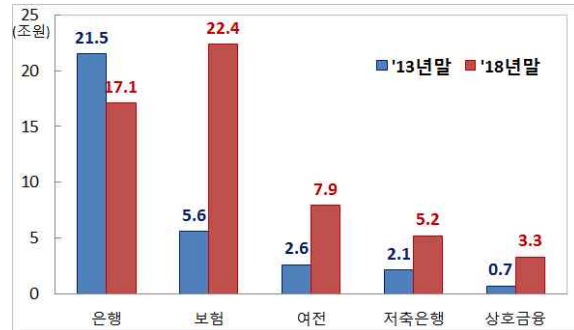
□ (잔액) '18년말 기준 소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64.0조원으로 '13년말(39.3조원) 이후 연평균 10.2%씩 증가

○ '13년 이후 비은행권(보험·여전사 등) 중심으로 대출취급 확대

부동산PF 대출잔액 추이



업권별 부동산PF 대출잔액 변화



□ (건전성) '18년말 기준 소금융권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은 각각 2.3%, 3.1% 수준으로 '13년 이후 하락세 지속

* 소금융권 부동산PF 대출 연체율(%) : ('14말)9.4 ('16말)4.1 ('18말)2.3

2. 부동산PF 채무보증

□ (규모) '18년말 부동산PF 채무보증 규모는 25.8조원으로 '13년말(12.1조원)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, 대부분 증권사에서 취급

* 부동산PF 채무보증(조원) : 소금융권 25.8 = 증권 24.1 + 여전 0.6 + 은행 1.1

2 잠재리스크 점검

1. 부동산PF 대출

① '13년 이후 부동산PF 대출 공급은 은행이 아닌 비은행이 주도

* 부동산PF 대출잔액('13년말→'18년말, 조원) : (은행)21.5→17.1 (비은행)17.8→46.9

○ 비은행권은 은행에 비해 유동성·자본력이 낮은 점을 감안할 때, PF 대출 건전성 변동시 시스템 안정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필요

- ② 시장여건 변화시 다수의 PF 사업장들의 사업성이 동시에 영향 받아 PF 대출 건전성이 일시에 변동할 가능성 상존

2. 부동산PF 채무보증

- ① 증권사, 여전사 등을 중심으로 채무보증 증가속도가 높은 편
- ② 채무보증의 세부 데이터, 취급 이력에 대한 정보수집이 미흡하여 채무보증의 위험 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부족

3

향후 대응방향

1. 부동산PF 익스포저 건전성 규제 정비

- ☐ 자본적정성·자산건전성·유동성 측면에서 건전성 관리

- * 부동산PF 익스포저에 대한 위험가중치, 대손충당금적립률 등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개선방안 검토
- * 채무보증에 따른 잠재적 유동성리스크를 감안하여 적정 관리기준 도입 검토

2. 부동산PF 리스크관리 강화 유도

- ☐ 「부동산PF 리스크관리 모범기준」이 도입되지 않은 업권(보험·여전)의 경우 모범기준 도입 검토
- ☐ 완충력·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요주의 금융회사를 선별하여 부동산PF 리스크관리 실태 점검 실시(금감원)

3. 「부동산금융 익스포저 종합관리시스템」 구축

- ☐ 가계-기업-금융투자 부문 부동산금융을 포괄하는 시스템 구축
→ 주요 지표의 DB화, 상시 모니터링 및 위험분석 실시
- ☐ 종합관리시스템 내에 '통합 PF 익스포저 상시감시시스템' 도입

1. 채권대차시장 현황

□ (규모) '19.1분기 기준 채권대차규모(평잔)는 59.8조원으로 '09년말(8.3조원) 대비 약 7.2배수준으로 증가

- 중개기관(증금, 예결원)의 최저담보비율 하향, 적격담보대상 확대 등 채권대차 확대를 위한 우호적 환경이 조성

□ (구조) 대차중개기관이 담보권자로서 차입자의 채무불이행 발생시 채무를 대신 이행*할 책임

* 적격담보를 수취하고 담보비율과 담보인정비율을 통해 담보를 관리

2. 위험요인

① 담보만 제공하면 차입자의 신용도와 관계없이 제한없는 차입이 가능하여 차입자 파산 시 중개기관의 대이행 책임 증가

② 차입하는 규모와 동일한 수준의 담보만 요구하고 있어 담보가치 하락시, 중개기관의 위험 확대

③ 증권시장과 채권대차시장간 연계성이 높아지고, 만기불일치가 발생하는 거래*가 증가

* CP·전단체 등을 담보로 대차시장에서 국공채를 차입하여 RP시장에서 단기자금을 조달

3. 대응방향

① 신용도를 평가하여 기관별 차입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대차중개기관의 거래상대방 리스크를 경감

② 담보관리를 강화하여 중개기관의 담보가치 하락 리스크를 경감

- ① 유동성이 낮거나 가치평가가 어려운 취급제한담보 범위를 확대
- ② 담보별 가치하락 위험을 감안하여 적격담보의 평가비율 하향
- ③ 최저담보비율을 상향하여 차입규모 이상의 담보를 확보
- ④ 담보별 비중을 제한하여 중개기관의 특정담보 쏠림을 방지

③ 담보적정성 등을 포함한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여 대차중개기관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대차관련위험 정교화를 추진